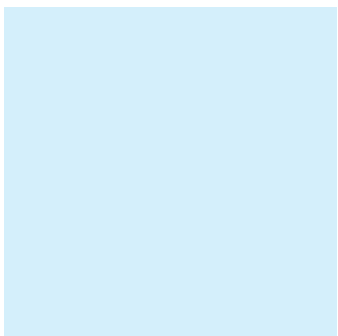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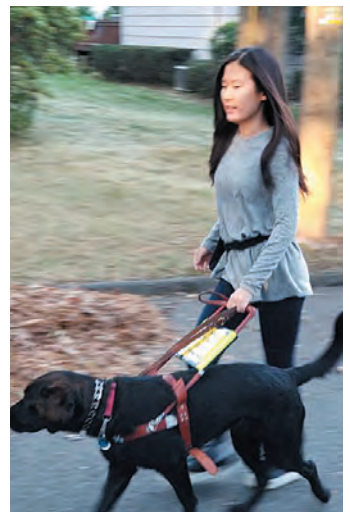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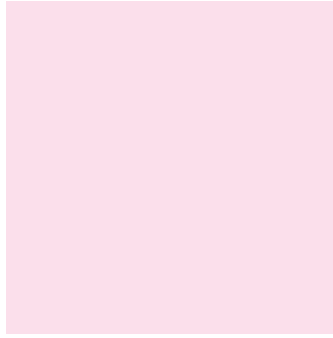




특집 _ “우리 기억해준 대한민국에 감사”... 마스크 37만장 입양동포에 전달
 초점 _ ‘흑인 사망’ 항의 시위, 재외동포 초긴장... 다행히 1992년 악몽은 재현되지 않아
 화제 _ 나라 지켜준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보은의 손길’



교육이 희망이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안녕하시냐’는 말이 형식적 소통을 위한 인사가 아닌, 진심의 안부 인사가 되는 요즘입니다.

또한, 반만년 이래 처음으로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어느 순간 리더국의 반열에 오르는 우리의 모습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다가도, 여전히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미안한 마음에 냉정을 되찾으려 합니다.

바이러스는 선진국과 후진국,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격하며 전 지구를 팬데믹(pandemic)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지구적 위기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생존 열쇠가 서로에 대한 ‘연대’와 ‘배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편하고 성가시지만 공공장소에서 꼭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발적으로 하며, 코로나19의 전선에 작지만 따스한 봉사과 지원의 동참을 보낸 수많은 이 시대 ‘아무개’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비슷한 한 걸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바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때로는 공격받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공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배우며 삶의 일부가 되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했던 공교육이 팬데믹 상황에서 독야청청하며 우리를 ‘연대’와 ‘배려’의 소중한 ‘한 걸음’을 만들어 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의 힘을 확인하면서 재외동포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의 강화 역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연대를 이루게 하는 힘이 됨을 확신합니다.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외동포는 누구일까요?

어떨 때는 우리이고, 어떨 때는 우리가 아닌 재외동포? 우리나라의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에 속하기 위한 자격은 과연 무엇일지? 우리나라의 인구는 얼마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5천만이라고 이야기하며 750만 재외동포의



최태성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 / EBSi 강사

수는 포함하지 않는 무의식, 이 무의식의 의도성은 우리를 문득 놀라게 합니다.

이 낮은 듯 낮지 않은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지치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서로의 정체성 ‘교육’입니다.

교과서 필자인 저 역시 재외동포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세대인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한반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한반도 밖에 있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연결해 서로 건강한 연대와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교육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 한글학교는 중요한 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교육적 노력은 우리를 하나로 단단히 묶어 내야만 하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진가를 발휘하며 힘차게 작동할 것입니다. 교육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창





04



06



10

- 02 권두언 교육이 희망이다
최태성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 / EBSI 강사
- 04 특집 “우리 기억해준 대한민국에 감사”... 마스크 37만장 입양동포에 전달
- 06 초점 ‘흑인 사망’ 향의 시위, 재미동포 초긴장... 다행히 1992년 악몽은 재현되지 않아
- 08 화제 나라 지켜준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보은의 손길’
- 10 기획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공동체 아일랜드 한인사회
- 12 글로벌 코리안 미국 하버드대 의대 맥린병원 김광수 교수
캐나다 동포 1.5세 김의영 감독
하와이 한국도서재단의 문숙기 이사장
- 14 한민족 공감 1 400년 중국 조선족 이주 역사, 3부작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다
- 15 한민족 공감 2 “책 받고 좋아하는 모습 떠올라 그만둘 수 없었죠”
- 16 동포소식 “긍정의 힘”... 시각장애 한인 여고생 프린스턴·하버드 합격 외
- 19 동포 캘린더 중국 저장성 Ning보시에 조선족 김치박물관 들어선다 외
- 20 지구촌 통신원 1 “대한민국 독립 위해 헌신한 쑥징허 지사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 21 지구촌 통신원 2 인종차별에 맞선 베를린 유학생 부모로부터의 나비효과
- 22 유공 동포 안중근·독도 연구의 권위자 최서면 선생 영면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동포문학 ‘윤동주 영역시선’ 펴낸 재미동포 변만식 씨
- 25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19개국 120명 선발
- 26 기고문 재한 87만 중국동포사회는 어디로
김용선 문화콘텐츠학 박사 / 한중무역협회 회장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준 대한민국에 감사” 마스크 37만장 입양동포에 전달

14개국 42개 입양단체에 배송...정부 입양동포 지원사업 중 최대



1

해 외 입양인은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이다. 6·25 전쟁을 거치며 고아나 기아가 넘쳐나자 잘사는 나라로 입양을 보냈다.

1960~19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해외 입양 행렬은 끝나지 않았다. 뿌리 깊은 혈연 중심 문화 탓에 국내에선 입양을 꺼리기 때문이었다. 장애를 지닌 아이일수록 품어줄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한국이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쓴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어쩌다 입양인이 거주국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면 한민족의 후예라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도움을 호소할 때는 함께하지 못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사례라는 칭송과 자부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1958년 입양인 통계 수집을 시작한 이래 해외의 입양동포는 16만7천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1만여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유럽과 호주 등지에 살고 있다. 1958년 이전 통계는 없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해방 후 그때까지의 해외 입양동포를 20만 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입양인은 동포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는 몇 해 전부터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해외입양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외교부가 발표한 ‘2019 재외동포 현황’에는 기존의 북미 지역에 이어 처음으로 유럽과 호주의 입양동포 통계를 포함했다. 최근에는 입양동포가 친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DNA 뱅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의 해외 입양동포에 대한 예산은 14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재외동포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이 해외 입양인과 그 후손을 재외동포로 인식하는 비율은 54.7%로 ‘일제강점기 중국·구소련·일본 등으로 이주한 사람과 후손’(71.4%)이나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재외동포 2·3세’(59.6%)보다 낮았다.

이러다 보니 해외의 입양동포들은 대부분 한국을 모국으로 여기거나 자신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를 찾고 싶어하거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서 문화 체험을 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다.

60% 이상 미국... 40여 개 단체에 배송 완료

그런 그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해 집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으로부터 재외동포재단 명의로 보건용 마스크가 배송된 것이다. 자신에게도 모국이 있음을 실감케 한 신선한 충격이었다. 마스크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입양인도 있었다.

정부가 입양동포에게 마스크를 보내기로 결정한 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해외 마스크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국내에 가족이 있는 재외동포들은 예외적으로 일정 수량의 마스크를 가족으로부터 배송받을 수 있지만,



2



3

해외 입양인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 입양 동포의 거주국이 대부분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북미와 유럽에 집중됐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외교부는 4월 말 각국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입양인단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요를 조사했다. 지원 대상국은 입양동포 수와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반영해 미국·프랑스·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벨기에·호주·캐나다·독일·스위스·룩셈부르크·이탈리아·영국 등 14개국이다

총 지원 규모는 당초 약 10만 장으로 잡았다가 37만 장으로 대폭 늘렸다.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입양동포의 약 70%가 1970~1980년대에 건너간 30~40대여서 이들의 자녀 등 가족들을 고려한 수령이다.

37만 장 가운데 60%가 넘는 약 21만 장은 미국 지역으로 배달됐고 나머지 약 16만 장은 13개국에 배송됐다. 5월 25일부터 14개국 26개 공관에 순차적으로 배송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외교부의 협조와 재외공관의 노력으로 40여 개 입양인단체에 전달을 완료했고, 6월 말 현재 입양동포 개인에게 막바지 배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국서 감사 인사 쇄도… “기억해줘서 감동”

프랑스의 한인 입양단체인 뿌리협회(Racines Coréennes)의 니콜라 마송 회장은 재외동포재단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로 인류 전체의 삶이 곤경에 놓인 시기에 한국 정부의 배려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나의 출생국이 나와 우리 가족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고 고마워했다.

노르웨이의 입양단체 NKF(Nettverk for Koreanskadopterte)의 사라 롬삼 회장은 “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하며, 회원들과 마스크를 나누면서 고국과의 끈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한국입양인협회(Koreanische Adoptierte Deutschland e.V.)는 마스크를 받은 입양동포들의 사진을 모자이크로 꾸민 뒤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새겨 보냈다.

네덜란드의 아리랑(Arierang), 이탈리아의 KOR.I.A, 영국입양인후원회 등에서도 “마스크가 도착하기를 매우 간절하게 기다렸다”, “앞으로도 공관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한다” 등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한국은 해외 입양인과 그들의 자녀가 세



4

계 어디에 있던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아무썩 거주국의 존경받는 시민으로서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재외동포재단이 해외 입양인 마스크 지원에 들인 예산은 약 5억 원에 이른다. 한국 정부기관이 해외 입양동포를 지원한 단일사업으로는 해방 이후 최대 규모다.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1월 9~14일 해외 입양동포 약 150명을 초청해 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

1.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에서 마스크를 입양인단체에 전달하고 있다.
2.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에서 입양동포를 위한 마스크 전달식이 열리고 있다.
3. 독일한국입양인협회가 감사의 뜻으로 재외동포재단에 보내온 그림. 마스크를 받은 입양동포들의 사진을 모자이크로 꾸민 뒤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새겼다.
4. 입양동포에게 보내는 마스크 봉투 겉면에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란 글귀를 한글과 영어로 적어넣었다.

‘흑인 사망’ 항의 시위, 재미동포 초긴장 다행히 1992년 악몽은 재현되지 않아

한인들의 지지와 연대 움직임에 흑인 사회도 감동받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중년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길바닥에 엎드려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린 채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하다가 사망했다. 그가 받은 혐의는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던 것이었으나, 그는 법정은커녕 경찰서에도 가보기 전에 사형 집행을 당한 셈이었다. 이 장면은 현장을 지나던 10대 흑인 여고생의 스마트폰 동영상에 담겨 SNS로 퍼져 나갔다.

이를 보고 분노한 흑인들은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에 나섰다.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를 외치는 함성이 미국 전역으로 번져갔다. 시위대 일부가 경찰에 돌을 던지고 순찰차를 부수는 등 과격 행동을 벌이자 경찰은 최루가스· 고무탄· 곤봉 등으로 맞섰다. 상점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약탈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플로이드가 6월 9일 고향인 텍사스주 휴스턴 외곽에 안장될 때까지 보름간 미국 140개 이상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최소한 4명이 숨지고 1만여 명이 체포됐다. 21개 주에서 주방위군이 출동했으며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사건 이후 가장 많은 20여 개 도시에서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한인 점포 50여 곳 피해… LA 코리아타운은 자체 경비에 나서

재미동포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1992년 LA 폭동의 악몽이 되 살아났기 때문이다. 당시 과속으로 차를 몰던 흑인 로드니 킹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경찰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나자 분노한 흑인들이 과격 시위를 벌여 55명이 숨지고 2천300여 명이 다치는 사태를 불러왔다.. 이때 폭도로 변한 일부 시위대는 선망과 질시의 대상이던 한인 가게 1천600여 곳을 습격해 인명을 살상하고 막대한 재산을 손실케 하였다.

이번에도 사태의 진원지인 미니애폴리스 일대의 한인 점포 5개소가 5월 28일 밤 약탈과 방화 피해를 본 것을 시작으로 LA,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워싱턴DC, 애틀랜타 등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28년 전 생지옥을 겪은 LA 동포들은 자체적으로 비상순찰대를 구성해 코리아타운 경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그때와 달랐다. 시위대의 습격을 받은 한인 상점이 50여 곳에 이르지만 피해 규모가 그때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흑인과 한인 사회가 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였고,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본 한인 가게를 돕는 훈훈한 광경도 등장했다.

“한인 식당 마마 김! 걱정 말아요. 우리가 도울게요”

5월 말 미국의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는 “우리의 한인 식당 ‘마마(mama) 김’을 도웁시다”란 글이 속속 올라왔다. 과격 시위 여파로 약탈 피해를 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인 식당을 돕기 위해 기금을 모으자는 내용이었다.

‘마마 김’ 식당 인근 시타델대 동문과 지역 주민이 모금의 주축이 됐다. 이 대학 풋볼팀 주장 출신인 잭슨 쟁킨스를 비롯해 마셜 플레밍, 맥그리거 켈레트 등 찰스턴 주민도 모금 계정을 만들었다. 쟁킨스는 “‘마마 김’은 수



2

년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음식과 함께 휴식과 추억의 장소를 제공했다”며 “이제 우리가 보답할 때가 됐다”고 썼다. 시타델대 동문과 지역주민은 단숨에 1만6천 달러(약 1천930만 원)를 모아 6월 6일 ‘마마 김’ 주인 브라운 김 씨에게 전달했다.

시카고에서도 한인 식당에 십시일반의 온정이 이어졌다. 5월 31일 시카고 한인 식당 ‘서울 타코’는 현금을 도둑맞고 TV와 상점 유리창이 파손되는 피해를 겪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몇 달 동안 문을 닫았다가 영업 재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떨어진 날벼락이었다.

식당 주인 데이비드 최 씨는 NBC방송 아시아인 아메리칸 코너에 출연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를 지지한다”면서 “이번 약탈 사건이 나의 지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이번 사건으로 가게의 모든 것을 교체해야 하지만 잇따른 생명의 희생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타코’의 사연은 지역사회에 알려지며 큰 호응을 끌어냈다. 한 고객은 고편드미에 ‘서울 타코’ 돕기 모금 계정을 만들었다. 이웃들은 빗자루를 들고 나타나 식당 앞을 청소했고, 합판 가림막 설치 작업을 도왔다.

28년 전 피해 겪은 91세 한인도 시위에 동참

6월 6일 LA에서는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평화 시위가 한인 주도로 열렸다. 한인 청년으로 구성된 풍물패가 팽과리·장구·북을 치며 분위기를 돋우는 가운데 한인들이 잇따라 발언에 나서자 흑인 참가자들은 고마움을 표했다. 한 흑인 여성은 “한인들이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집회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광경을 보니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털어놓았다.

이튿날 애틀랜타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1992년 폭동 피해를 겪은 박상수 씨가 보행보조기에 의지한 채 91세의 노구를 이끌고 동참해 감동을 주었다. 그는 “28년 전 나도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슬픈 일을 당했다라도 감정으로



3



4

해결하려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모두 이기는 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9일 뉴욕에서는 한인 교회가 주축이 돼 플로리드 추모 예배가 열렸다.

애틀랜타의 한인 선교단체는 시위대에 간편음식과 음료를 나눠주면서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했다. LA한인회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한인 사회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장학기금을 만들고, 교육 기회에서 불평등을 겪는 저소득 흑인 학생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50만 달러(약 5억9천500만 원)를 목표로 장학기금 조성을 시작했다.

애틀랜타의 한인 이종원 씨는 “흑인 인종차별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한인사회에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LA에 본부를 둔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 최광철 대표는 “동포사회와 한인 상가를 지키는 힘은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연대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참]**

1. 폭도로 변한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진열대가 부서지고 상품을 약탈당한 필라델피아의 한인 점포.
2. 재미동포들이 6월 4일 미국 LA 도심에서 열린 흑인 사망 항의 시위에 동참해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뜻으로 무릎을 꿇고 있다.
3. 찰스턴의 한인 식당 ‘마마 김’에 주민들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4. 6월 7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경찰 폭력 규탄 집회에서 보행보조기에 의지해 동참한 91세 한인 박상수 씨가 발언하고 있다.

나라 지켜준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보은의 손길’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 참전 22개국에 마스크 100만 개 전달
각국서 감사 편지 쇄도… NGO·한인회 등도 다채로운 행사 활발

6·25 전쟁은 유엔이 세계 평화 유지를 목표로 유엔군을 창설한 뒤 파병한 최초의 전쟁이었다. 다국적으로 구성된 유엔군은 언어는 물론 종교·문화·식생활 등이 달라 작전 지휘나 통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나라 이름이나 위치도 생소한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유엔기를 앞세워 미군의 지휘하에 낙동강과 압록강을 오르내리며 3년간 전쟁을 치렀고, 부상자들을 최일선에서 돌봤다. 이런 까닭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산에 ‘유엔군 묘역’도 자리 잡고 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연합국은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6개국을 합쳐 22개국이다. 예전에는 참전국 수를 21개국으로 집계했지만, 2018년 독일의 의료 지원활동이 공식 인정되면서 22개국으로 늘었다. 적국까지 포함하면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26개국이 참여한 국제전쟁으로도 기록됐다.

유엔군 참전 규모만 195만7천733명으로 200만 명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3만7천902명이 전사·사망했다. 이들 외 부상·실종·포로 등까지 포함하면 유엔군 피해 규모는 15만1천129명에 이른다.

최다 파병국이자 최첨단 장비와 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유엔군의 주축을 이루긴 했지만 적은 병력으로 빛나는 전과를 올린 부대도 있다. 황실 근위병을 중심으로 편성된 에티오피아 강능부대는 253전 253승이라는 믿기 어려운 전적을 남겼으며, 태공군은 포크합 전투에서 5배가 넘는 중공군에 맞서 고지를 사수해 ‘리틀 타이거’로 불렸다.

영국군 제29여단은 설마리 전투에서 1천3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도 3일간 중공군의 서울 진



격을 막아냈고, 울동 전투에서 활약한 필리핀군 제10대대전투단은 ‘더 파이팅 필리피노’란 별칭을 얻었다.

22개국 참전자 195만 명 중 현재 40만 명만 생존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청년이던 참전용사는 노병이 됐고, 그나마 생존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6월 현재, 유엔군 참전용사 생존자가 약 40만 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참전자 전체의 20%만 남은 상황이다. 생존자 평균 연령은 88세다. 이마저도 외국 국적이다 보니 정확한 생존자 현황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한 5월 초,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22개국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시 국내 역시 마스크 5부제 시행 및 해외 반출 제한 등이 지켜지던 상황이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별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살펴보니 아이러니하게도 70년 전 우리나라에 의료지원을 했던 이탈리아 등 참전국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 기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총 지원 수량은 100만 장으로, 전체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50만 장이 지원됐다. 그 외 21개국에는 참전 인원 및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을 고려해 50만 장이 배분되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참전용사들에게 1만 장을 추가 지원했다.

“값 매길 수 없는 선물”… “고귀한 대의 향해 손잡아”

한국 정부의 ‘뜻밖의 선물’에 각 참전국의 현지 주한대사관에는 그 나라 국민들의 감사 인사가 쇄도했다. 프랑스 국적 참전용사인 미셸 오즈왈드 씨는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마스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충실한 우정과 따뜻한 함을 담은 선물”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로버트 월키 미국 보훈부 장관은 공식 감사 서한에서 “우리가 보살펴야 할 참전용사를 코로나19가 위협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봉쇄하기 위한 고귀한 대의를 향해 함께 손을 잡았다”고 고마워했다.

그러나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상반기로 예정했던 유엔군 참전용사를 위한 행사를 대부분 연기하거나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행사’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지난 1975년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작했으며, 2010년 6·25 전쟁 60주년 사업을 계기로 보훈처가 주관하면서 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공식 초청하고 있다. 2018년 말까지 3만3천여 명이 한국을 다녀갔다.

고령이나 건강상 이유로 방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현지 감사 행사도 계획 중이다. 참전 22개국을 초청한 ‘보훈부 장관회의’, ‘군부대 장병 초청행사’ 등도 추진한다.

올해는 11월 11일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부산을 향하여) 행사와 연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턴 투워드 부산은 매년 11월 11일 참전국들이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향해 묵념하는 행사다. 캐나다인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씨의 제안으로 2007년 시작됐다. 추진위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관련 사업과 행사의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새에덴교회 온라인 초청행사…

칠곡군은 감사 편지 쓰기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각국 한인회 등에서도 6·25 70주년을 맞아 해외 참전용사를 위한 다양한 보은 행사를 펼치고 있다. 2007년부터 해마다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열어온 경기도 용인의 새에덴교회는 6월 24일 미국·캐나다·태국·필리핀 참전용사와 가족을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마스크, 메달, 스카프, 모자, 책자 등은 미리 우송했다.

미국 LA총영사관은 미주 한국인삼공사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가 기증한 홍삼제품 1만 포 등을 참전용사에게 전달했으며, 워싱턴주 스포캔한인회는 참전용사 요양원을 찾아 마스크 950개를 나눠줬다. 한인 2세들이 설립한 내일재단은 뉴욕한인회를 통해 뉴저지 참전용사의 집에 방호복을 지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협의회는 동포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참전용사께 감사의 마음을 영문 편지로 전하기’ 공모전을 열었다. 한국해비타트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경북 칠곡군도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

1. 5월 27일 프랑스 파리의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마스크 전달식이 열리고 있다.
2. 5월 8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전달할 마스크를 수송기에 싣고 있다.
3. 뉴욕한인회가 5월 26일 미국 뉴저지 참전용사의 집에 방호복 1천 300벌을 지원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공동체 아일랜드 한인사회

세계 곳곳에 뿌리내린 아일랜드 디아스포라 역사... 한국과 비슷

아일랜드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아일랜드인이 세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영국,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주했으며 오늘날에도 아일랜드와 이들 국가는 각별한 경제적·문화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슬픈 역사로는 1845년부터 1849년에 일어난 '감자 대기근'(The Great Famine)으로 약 200만 명의 아일랜드 사람이 아사(餓死)한 때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아일랜드의 해외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이민은 19세기 후반까지 약 500만 명에 달했다. 오늘날 미국에만 아일랜드계 미국인의 수가 약 4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과 아일랜드의 수교는 1983년 10월 4일 이루어졌으며 1987년 7월 10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상주 공관을 개설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수는 3천 명이며 이 중 2천 500명이 수도 더블린에 살고 있다. 현지에 정착한 동포 수는 850여 명이고, 다문화 가정이 100여 가구, 그 외는 워킹홀리데이 취업연수생(연간 600

명), 여학 연수생과 유학생이다.

아일랜드 한인 이주사는 크게 두 줄기로 나뉜다. 다문화 가정 배우자를 따라 정착한 가족이 1970년대부터 있었고, 1990년대부터는 한국 기업의 진출과 아일랜드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노동 허가를 받은 전문 직종 한인이 급증해 정착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초기에는 유학생으로 아일랜드에 입국한 뒤 창업해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도 50여 가구에 이른다.

한인회, 각종 행사 개최로 한인 공동체 인화와 친목에 기여

아일랜드 한인회(회장 권순주)는 2011년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출범했다. 소수 동포의 친목 중심 모임에서 시작해 5년여 만에 자영업자, 직장인, 교수·의사 등 전문직종, 유학생, 여학 연수생 및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다문화 가정 모드를 아우르는 정회원 150여 명의 명실상부한 한인사회 대표적 단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인회는 한인들의 조력자가 되어 한인 공동체의 인화와 회원 상호 간 친목을 통한 시너지를 응집해 한국인의 긍지와 역량이 아일랜드 전체에 퍼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인회는 매년 설날 떡국 잔치, 광복절 기념식 및 한인 가족 공동체의 날 행사, 송년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연말연시에는 혼자 사는 청년층과 외국인, 그리고 노숙자, 소외계층을 위한 '크리스마스 식사' 행사를 8년 연속 공동 개최하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재외국민의 수가 적어 다른 국가에 비해 늦게 한글학교들이 개교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



1



2



3



4



5

게 되고, 아일랜드 내의 다문화 가정 수가 많아지면서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더블린, 코크, 골웨이 등 아일랜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더블린 한글학교는 교사들이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현지인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학생 5개 반과 성인 2개 반이 운영 중이다. 2019년 12월 개교 10주년 기념식을 올렸다.

아일랜드의 한국 기업 진출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새한미디어를 빼놓을 수 없다. 아일랜드 사회에 큰 주목을 받으며 진출한 비디오테이프 생산업체 새한미디어는 아일랜드의 서부 지방인 슬라이고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역 경제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을 아일랜드에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비디오테이프의 수요 감소로 매출이 줄어 2007년 새한미디어 아일랜드 법인은 15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철수했다.

“워홀’ 경험 후 아일랜드에 다시 진출하는 한인 청년 늘어나”

아일랜드 한인사회에서 최근 주목할 현상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일랜드 경험을 쌓은 한인 청년이 유학생으로 다시 오거나,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김건무 씨는 워홀로 와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뒤 김치 사업을 시작했다. ‘자루’라는 브랜드로 창업한 후 현지 슈퍼마켓에 김치를 공급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일랜드 유학을 마치고 현지 애플·구글 등 IT 업체, 회계·호텔 등 업계에 취업해 일하거나 더블린대학(UCD)과 같은 명문대학 교수나 강사진으로 진출한 한인 젊은이도 있다.

여운기 대사는 “지난해부터 한국대사관에서 아일랜드식당협회와 함께 우리나라 요리사 진출을 추진해 요리사로도 현지 식당에 취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여 대사는 “신세대들의 진출을 위해 대사관에서 IT, 금융회계, 학계, 관광서비스 등 분야별 모임을 주선함으로써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취업에 필요한 멘토링도 연계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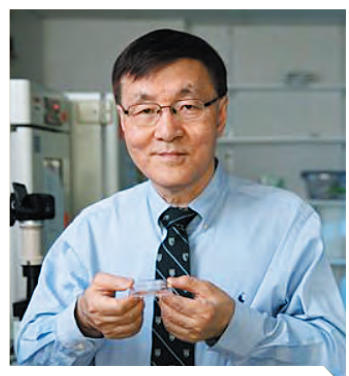
지난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재외동포 결의문 발표

아일랜드 한인회는 지난해 3월 1일 아일랜드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뜻깊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코맥 오 그라다 더블린대 교수가 기미독립선언문을 아일랜드 고유어인 아이리시어로 번역해 직접 낭독했다. 아일랜드 한인회는 선현들의 3·1정신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는가를 반성하며, 자신과 우리의 미래를 굳건히 다짐하자는 의미에서 재외동포 결의문을 발의해 발표했다.

아일랜드 한인회 초대 회장을 지낸 손학순 더블린한글학교 교장은 “한인사회는 그 나라 문화를 많이 닮는다. 아일랜드 사회가 격식을 따지지 않고 (informal), 친밀감(intimacy)을 중시하는 사교적인 분위기라 아일랜드 한인사회도 이를 닮았다. 아일랜드 한인사회는 체계적·조직적이라기보다는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하는 친밀한 공동체 성격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 교장은 또 “(한인회) 창립 초기에는 연말 행사 때 아일랜드 모든 한인 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한인만이 아니라 현지인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회고했다. **창**

1. 지난해 8월 17일 더블린 근교에서 열린 ‘한인 가족의 날’ 행사의 태권도 시범 장면. 아일랜드 한인회는 매년 광복절 기념행사의 하나로 가족의 날 행사를 마련한다.
2. 더블린한글학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여운기 대사(왼쪽)가 손학순 교장(왼쪽에서 두 번째)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3. 2018년 5월 29일 아일랜드를 방문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더블린 숙소 호텔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4. 지난해 3월 1일 아일랜드한인회 주최로 더블린 트리니티대 싱크장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5. 지난해 5월 4일 대한민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



미국 하버드대 의대 맥린병원 김광수 교수

세계 최초로 파킨슨병 환자 줄기세포 치료에 성공 성체세포 이용해 생명 윤리·면역 거부 문제 없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를 졸업한 한인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맥린병원의 김광수 교수 연구팀은 파킨슨병 환자의 피부세포를 역분화시켜 뇌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파킨슨병의 임상 치료에 성공했다.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에 분포하는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가 점차 사멸해 발생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다. 떨림, 경직, 보행 이상 등 다양한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연구팀은 환자의 피부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만드는 '역분화 줄기세포'(iPS) 기술을 이용해 치료했다. 성인의 세포(성체세포)를 다시 원시 세포로 되돌린 역분화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와 달리 환자의 성체세포로 줄기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생명 윤리나 면역 거부 등의 문제가 없다.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해 뇌 질환 치료에 성공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파킨슨병 환자의 체세포를 안정적으로 줄기세포로 전환한 뒤 다시 도파민 세포로 분화시키기 위해 효율을 극도로 높여야 하고 부작용과 유해성이 없어야 하므로 고난도 기술로 꼽힌다.

연구팀은 2011년 역분화 줄기세포 제작 기술을 처음 개발해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 적용하는 실험에 성공한 뒤 2017년 파킨슨병 환자 조지 로페즈 씨의 뇌에 역분화한 도파민 신경세포를 이식했다. 이후 2년 동안 PET(양전자 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 테스트를 거쳐 지난달 임상 치료에 성공했다. 의사이기도 한 로페즈 씨는 이제 구두 끈을 다시 묶을 수 있게 됐고 수영과 자전거를 즐길 정도로 운동 능력을 회복했다.

김광수 교수는 "안전성과 효능성 입증에 위해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며 "맞춤형 세포 치료가 파킨슨병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렸다.

캐나다안 영화제서 감독상 포함해 3관왕 홀로 딸 키우는 아시안 여성의 삶 그려내 호평

캐나다 동포 1.5세 글로리아 김(한국명 김의영) 감독이 장편영화 '고요한 아침의 여왕'(Queen of the Morning Calm)으로 '캐나다안 영화제(CFF) 2020'에서 감독상을 차지했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이 영화제에서 한인 감독이 감독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김 감독은 특별심사위원상과 릴 캐나다안 인디 어워드(Reel Canadian Indie Award)도 거머쥐어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김 감독은 수상 직후 "믿을 수가 없다. 3관왕. 수상작으로 선정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 첫 장편영화를 응원하는 모든 출연자, 제작진, 파트너, 가족과 친구들의 노고에도 감사한다"고 털어놓았다.

올해 CF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위성TV 슈퍼채널과 제



휴해 열렸다. 5월 21일부터 3주 연속으로 36편의 출품작을 상영했다. '고요한 아침의 여왕'은 29일 오후 공개됐다.

주인공 데버라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한 29세 싱글맘이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낳은 10살짜리 딸 모나를 기르며 토론토 스트립 바에서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 주인공 모녀는 학대와 가난, 트라우마로 뒤엉킨 삶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영화는 아시안 여성이 마주해야 하는 문제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보여준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 속에서 성장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주연을 맡은 티나 정은 캐나다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에 출연한 한인 2세대.

김 감독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토론토대 영문학과의 라이어슨대 영화학과를 졸업했다. 외삼촌이 고 정영일 영화평론가다. 현재 '성찬'(The Banquet)이라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으며 북미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를 주제로 한 TV 스릴러 시리즈 'GONE'을 만들고 있다.



캐나다 동포 1.5세 김의영 감독

“한국이 역사·문화의 나라로 알려지길” 하와이 도서관에 전 재산 쾌척 후 별세

한국어 도서 구입을 위해 써 달라며 미국 하와이 주립도서관에 전 재산 100만 달러(약 12억 원)를 쾌척한 문숙기 할머니가 5월 25일 별세했다. 문 할머니는 2000년 갑상선암과 유방암에 이어 2010년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 향년 79세를 일기로 하와이 퀸스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영결식은 6월 16일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유족으로는 남편 문유진 씨와 1남이 있다.

서울 출신인 문 할머니는 1981년 하와이로 여행을 갔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해 정착했다. 1996년 하와이주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한국어 도서 구매비 연간 2천300달러를 전액 삭감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한 뒤 남편과 함께 한국 책 구입과 보급에 나섰다.

할머니는 이듬해부터 한국 도서를 사들이고, 주립도서관의 한국 도서 담당 자원봉사자를 뽑아 운영하는가 하면, 2005년에는 한국도서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을 맡았다. 주 정부를 비롯해 하와이 동포, 한국 정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을 추진해 매년 3만 달러 정도의 도서 구입비를 확보했다. 그 결과 하와이 주립도서관은 한국 도서 보유 규모가 1996년 200권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3만 권에 이르렀다. 미국 전체 주립 도서관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 도서를 비치하고 있다.

고인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한국 도서 구매 기금을 기부해 전자책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서 확보에 나섰다. 그러다 2017년 전 재산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기부금은 한국 책 구입과 함께 미국 내 최초로 주립도서관 시스템을 이용해 한국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였다.

고인은 생전에 “한국 관련 도서가 미국 내 도서관에 더 많이 비치돼 한국이 역사와 문화가 있는 나라로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문숙기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2014년 ‘숨은 재외동포 영웅 발굴·홍보 프로젝트’ 제1탄의 주인공으로 소개했다. [▶](#)



하와이 한국도서재단의 문숙기 이사장



400년 중국 조선족 이주 역사, 3부작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다

한중문화콘텐츠연구소 제작 '민족' 1부 연말 국내 상영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민족문화를 가장 잘 유지하며 자긍심을 지켜온 조선족이 개혁 개방 이후 글로벌화하면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선족의 역사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차세대에 뿌리 의식을 심어 주려 합니다.” 조선족 역사 3부작 다큐멘터리 영화 ‘민족’을 만드는 안상경(49) 중국 선양 한중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의 각오다.

안 소장은 2016년부터 자료를 수집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기획했다. 1편 ‘민족-혈연의 강들’(감독 이세원)은 지난해 완성됐다. 만주와 한민족의 인연을 개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제4차 예술영화 심사를 통과해 올해 말 국내 독립예술영화관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안 소장은 “조선 중기 무신인 강홍립 장군 일행이 명나라를 도우러 출병했다가 1619년 후금과의 전투에서 패해 포로로 억류된 것이 조선인의 중국 동북 3성 최초 정착”이라며 “1636년 병자호란, 1869년 함경도 대기근,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벌어졌던 한민족의 이야기까지 소개한다”고 설명했다. 강홍립 장군 군사들이 개척한 마을인 박가촌(朴家村)의 후예와 조선족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인터뷰 장면도 등장한다.

충북대 문학박사와 한국외대 문화콘텐츠학박사 학위 소지자인 그는 충북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5년부터 연구소를 맡고 있다. 조선족과 고려인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선양의 한중교류문화원 이사장인 안철락 상익그룹 회장의 요청으로 주저 없이 중국행을 택했다. 연구소는 한중교류문화원의 산하기구다.

안 소장은 “조선족은 가장 오랜 이주 역사 속에서도 민족 정체성을 간직해왔으나 모국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있어



조선족 역사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하고 있는 안상경 한중문화콘텐츠연구소장(좌), 3부작 다큐멘터리 영화 1편 ‘민족-혈연의 강’ 포스터. 올해 말 국내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안타까웠다”면서 “모국 동포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 상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화 2부 ‘민족-독립전쟁’은 1930년대 만주사변 이후 한·중 항일 연합투쟁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3부인 ‘민족-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에서는 1950년대 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과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 살아온 조선족의 삶을 조명한다. 시나리오노는 완성됐고 내년 상반기에 크랭크인할 예정이다.

“국가와 민족, 이념과 노선, 남녀노소를 넘어서 오직 항일이 목적이었던 사실에 주목하려 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운명공동체로 투쟁했던 사실을 부각하는 내용을 담아 조선족 동포와 모국 동포의 거리를 좁히고, 나아가 한중 동반자 관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안 소장은 “한민족의 발자취를 좇아 동북 3성을 누비다 보니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사료를 많이 발견했다”면서 “조선족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일조하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창**

손석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책 받고 좋아하는 모습 떠올라 그만둘 수 없었죠”

20년간 재외동포에 한국어 책 185만 권 발송

6월 9일 경기도 용인시 해외동포 책보내기운동협의회(해동협) 창고 앞에서는 손석우(77) 해동협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책 꾸러미를 포장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책 1만5천 권을 발송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스크 1천 장, 한복 15벌, 태권도복 15벌, 권투장갑 15개도 동봉했다.



손석우 사단법인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좌). 6월 9일 경기도 용인시 해동협 창고 앞에서 책 발송식이 열리고 있다.

2000년 설립된 해동협은 지난 20년간 63개국 재외동포를 위해 185만 권의 한국어 책을 보냈다. 해마다 9만 권이 넘는 책을 각국 동포사회에 전달할 것이다. 손 이사장은 “힘든 적도 많았지만 책을 받고 좋아하는 동포들의 모습이 떠올라 책 보내기를 그만둘 수 없었다”면서 “한국어 보급과 한국 문화의 확산은 덤으로 얻어진 성과”라고 말했다.

50대 중반까지 정당에서 민원국장을 맡았던 그는 재외동포들이 보내온 고충을 들으면서 동포사회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이후 정당인 생활을 끝내고 1999년 농업 이민을 위해 브라질로 날아갔다. 지인을 만나 상파울루 한국어학교 도서관을 방문했다가 한국어로 된 책이 몇 권밖에 꽂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민을 포기했다.

“가슴이 아팠어요. 책을 보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당시 교장 선생님에게 귀국해 책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사비를 털고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책 6천 권을 부쳤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책을 모을 수 없었다. 해외 발송비도 만만치 않았다. 연합뉴스와 경인일보 등 언론사와 ‘사랑의 책을 보냅니다’라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각지의 한국문화원, 한국학교, 한인회 등이 기부 요청을 해왔다. 책을 보

내주는 독지기도 늘어났고 책 종류도 요리, 동화, 만화 등 다양해졌다. 이 공로로 해동협은 2008년 독서문화상 대통령상과 2015년 세종문화상을 받았다.

“한진택배와 외교부,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 고 이필우 국회의원, 책 모으기에 나서준 서울 강남구청과 종이문화재단...,” 손가락을 꼬으며 후원자를 거명하던 손 이사장은 “무엇보다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허리를 다쳐가면서도 묵묵히 도와준 봉사단원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책 쌓을 공간이 없어 지하실에 몇만 권을 보관했는데, 발송 작업을 하다 책 먼지를 많이 마셔서인지 파상풍균에 감염돼 10일간 병원 신세를 진 일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 책을 읽으며 부모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게 됐다”는 재미동포 2세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뒤, 힘들었던 기억을 모두 잊는다고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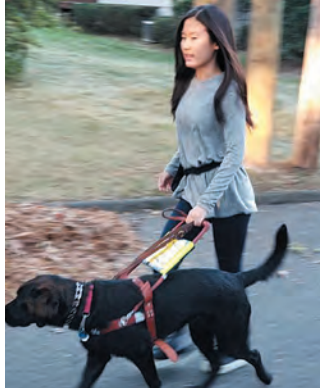
해동협은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책을 접하기 쉽지 않은 국내 소외계층, 군부대, 노인정 등에도 책을 보내고 있다. 독서 풍토 진작을 위해 독후감 대회도 연다. 그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하겠지만 젊은이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주기 바란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창**

“긍정의 힘”... 시각장애 한인 여고생 프린스턴·하버드 합격

이영은 양 프린스턴대 진학 결정... 대통령 장학생 등에도 선발

미국의 한인 여고생이 최고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에 동시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뉴저지주 데마레스트 소재 노던밸리(Northern Valley) 고교 12학년(졸업 예정)에 재학 중인 이영은(19·미국명 줄리아나) 양. 5월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로부터 잇따라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주변 권유에 따라 프린스턴대로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이 양은 선천적 시각장애를 딛고 안내견 ‘메기’의 도움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 주재원인 부모를 따라 2010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이 양은 지난해 제30대 미국 대통령 캄빈 쿨리지 이름을 딴 쿨리지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고교 11년생 3천400여 명이 지원했



이영은 양과 안내견 ‘메기’.

고, 이 양을 포함해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대학 4년간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다.

이 양은 최근 미 연방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대통령 장학생(U.S. Presidential Scholars Program)으로도 선발됐다. 지난해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 장애인의 날 행사에 패널로 참석해 토론에 나섰다. 2017년에는 식당에 안내견 메기를 데리고 갔다가 출입을 거부당하자, 학내에 안내견 관련 클럽을 만들어 친구들과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프린스턴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뒤 정치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이 양은 “학교와 부모님 등 그동안 도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세상에 긍정의 힘을 전하고 싶다”고 희망을 내비쳤다.

“남은 실종자 1명도 가족 품에 돌아오길”

헝가리서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희생자 1주기 추모식

지난해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33명과 헝가리인 선장·승무원 2명을 태운 유람선이 추돌사고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희생자 1주기를 맞아 부다페스트에서 최규식 주헝가리 한국대사와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 커러초니 게르게이 부다페스트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다. 희생자 가족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최 대사는 “희생된 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고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한 분의 실종자가 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바란다”고 덧붙였다.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희생자 1주기 추모식에서 최규식 주헝가리 한국대사가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유람선 운행사인 페노라머 데츠크는 사고 현장에서 별도로 추모식을 열었다. 선사 관계자들은 다뉴브강에 화환을 띄워놓고 배의 경적을 울리며 선장·승무원과 관광객들의 넋을 기렸다. 페노라머 데츠크의 토트 미하이 대변인은 “헝가리 선박들은 5월 29일을 언제나 애도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헝가리 정부는 당시 구조 작업에 참여한 한국 잠수사들과 구조 전문가 38명에게 공로 훈장을 수여했다. 벤코 티보르 헝가리 국방장관은 당시 헝가리 주재 국방무관이던 송순근 대령에게 공로상을 전달했다. 헝가리 정부와 부다페스트 시 당국은 사고 현장 인근에 추모비를 건립한다. 희생자 1주기에 맞춰 완공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져 올해 안으로 세우기로 했다.

‘간사이에 남겨진 조선통신사 발자취’ 발간 교토국제중고 교사 5명 1년간 답사… “한·일친교 정신 되살리자”

재일동포 민족학교인 교토(京都)국제중고등학교는 한·일 친선 교류의 상징이던 조선통신사의 일본 내 발자취를 소개하는 책 ‘간사이에(關西)에 남겨진 조선통신사 발자취’를 발간했다.

조선통신사는 조선 국왕이 일본 막부(幕府) 장군에게 파견하는 사절을 말한다. 통신사란 명칭을 처음 쓴 것은 1413년(태종 13년)이었으나 정사 박분이 중도에서 병이 나는 바람에 중단됐다. 이어 1429년(세종 11년)부터 1811년(순조 11년)까지 19차례에 걸쳐 파견이 이뤄졌다.

파견의 목적은 왜구 근절 요구나 장군 즉위 축하 등 외교적인 것이었으나 300~500명이 쓰시마섬을 거쳐 시모노세키(下關)부터 육로로 교토(조선 후기에는 도쿄·東京)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규모 문화 교류가 진행되고 무역도 이뤄졌다.

박경주 교장과 김영지 교감, 사회과목 교원 등 5명은 1년에 걸



쳐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시가(滋賀), 효고(兵庫), 나라(奈良), 와카야마(和歌山), 미에(三重) 등 간사이 지방의 주요 도시를 답사한 뒤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소개했다.

박 교장은 “한일 양국은 역사 인식과 민족 감정 등 여러 면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과거 조선통신사의 경험은 오늘날 양국이 어떻게 친교를 쌓아가야 하는지 살피는 척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실과 믿음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신교린(誠信交隣) 정신을 되살리자는 취지로 책을 펴냈다”고 덧붙였다.

교토국제학원은 이 책을 일본 내 재일동포 민족학교와 조선통신사를 연구·교육하는 기관·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한인회 온정이 훈훈한 미소 자아내 정부에 방역제품 지원… 취약계층 동포에도 생필품 전달

재아르헨티나 한인회는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과 함께 5월 19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 청사와 시립 무니스 감염질환병원을 찾아 마스크 7만 장을 전달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 페르난도 스트라파세 비서국장은 백창기 한인회장과 장명수 한국대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감사의 뜻을 표시한 뒤 “한국 기업의 코로나19 진단장비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은 한국대사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코로나 사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답했고, 백 회장은 “아르헨티나에 사는 한인들도 현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행은 인근 무니스 병원으로 옮겨 디에고 산탈리 부시장과 파블로 곤살레스 몬타네르 병원장 등을 만났다. 산탈리 부시장은



백창기 재아르헨티나 한인회장과 장명수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 등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를 방문해 당국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한인은 언제나 협조적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눔을 실천해왔지만 이번에는 기부 규모가 커서 좀 놀랐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앞서 아르헨티나 한인회는 4월 5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7만4천550달러와 67만여 페소를 모아 연방정부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의 방역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한인에게도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쌀, 식료품, 마스크 등을 담은 상자를 준비해 5월 11~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타운과 아베자네다 상가 지역 등을 돌며 210가구에 배포했다. 백 회장은 “한 할머니께 상자를 드리고 돌아서는데 주머니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 손에 쥐어주셔서 감동했다”고 가슴 찡한 사연을 전했다.

뉴질랜드서 6·25전쟁 70주년 기념 사진전 열려

참전용사가 찍은 희귀 작품 등 70점 최초 공개

뉴질랜드 한인방송 해피월드TV와 한뉴문 화원(원장 김운대)은 6·25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6월 19일부터 한 달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옥스브리지 아트센터에서 사진전 '영원한 평화' (Forever Peace)를 열고 있다.

뉴질랜드 참전용사가 당시 직접 찍은 사진을 비롯해 전사자 시신을 찾는 다큐멘터리 '봄을 찾아서' 스틸 사진, 그리고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의 유해 발굴단 활동 모습 등 70점을 선보인다.

폭격으로 일부가 부서진 서울역, 작전 중인 뉴질랜드 군인들, PX로 변한 신세계백화점, 마을 주민을 위해 공연하러 가는 군인들, 임무를 마치고 덕천역에서 귀국길에 오르는 뉴질랜드 군인들의 모습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들 사진은 21살의 나이로 참전한 모리스 먼로 씨가 촬영했



1952년 뉴질랜드 참전용사 모리스 먼로 씨가 촬영한 사진. 서울 신세계백화점이 PX로 쓰이고 있다.

다. 고인은 1950년 말부터 1953년까지 경기도 동두천과 파주에서 포병으로 근무했다. 사진을 찍어 필름을 미국에 살던 편팔 여자 친구에게 보냈고, 여자 친구는 코닥 필름에서 슬라이드로 만들어 다시 먼로 씨에게 보냈다. 귀국 후 피지 여인과 결혼해 피지와 짐바브웨 등지에서 살았고, 2008년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뉴질랜드에 돌아와 살다가 2019년 작고했다.

해피월드TV가 2013년 서울과 뉴질랜드에서 '정전 60주년 기념 사진전'을 열어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사진전에는 당시 미공개 작품을 골라 전시한다. 5월 19일 개막식에서는 흥배관 오클랜드총영사와 유일한 아시안 시의원인 폴 영 씨, 경찰 간부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허욱구 단장은 동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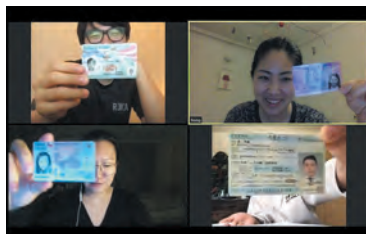
각국 코로나 상황 등 알려주는 '나폴레옹TV' 등장

월드옥타 차세대 운영... "한인 경제인 비즈니스에 도움되길"

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인종차별 혐의 시위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한인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channel/UC5AWwvPvHug0gAiOziZYBA)이 지난 5월 등장했다.

'나폴레옹TV'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에서 활동하는 대륙별 한인 차세대들이 만들었다. 미국 서부지역 차세대 대표인 이석진(30) 씨를 비롯해 프랑스 파리지회 홍수안(38) 씨, 일본 나고야지회 강동한(34) 씨, 칠레 산티아고지회 이진주(32) 씨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월드옥타 차세대 통합 무역스쿨 모국 방문 교육' 동기생이다.

6월 19일 현재 이 채널에는 한국어·영어·일본어로 제공되는 영상 23개가 걸려 있다. 처음에는 미국·일본·프랑스·칠레 등



나폴레옹TV를 운영하는 월드옥타 차세대 회원들.

지의 코로나19 상황을 업로드했지만 지금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 신하마마츠(新浜松)역 분위기를 촬영한 영상, 프랑스의 긴급사태 이후 파리의 한 지하철역을 찾아가 찍은 영상 등이 눈에 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주 회원이 거리를 돌며 찍은 '미국 흑인 사망으로 세계로

확산하는 항의 데모-여러 곳에 깔리는 경계 태세'란 제목의 영상과 프랑스 파리의 3대 버룩시장 방브시장을 찾아가 '앤티크와 잡화의 보물찾기'를 하는 영상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석진 대표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코로나19 등에 따라 물류 배송 계획에 차질을 빚기 일쑤였다"며 "차세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인 경제인들에게 도움을 줄 방안을 모색하다가 채널을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중국 저장성 Ningbo시에 조선족 김치박물관 들어선다

해양 실�크로드 거점도시인 중국 저장(浙江)성 Ningbo(寧波)시에 김치박물관이 들어선다. Ningbo시와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가 남송돌조각공원에 공동으로 건립할 이 박물관은 김치 역사관, 김치 담그기 체험관, 조선족 음식 체험관, 조선족 민속복장 체험관 등 4가지 테마관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선족 1천여 명이 거주하는 Ningbo시와 직항로 개설, 기업 상호 투자, 쌀 수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지원 대상 동포 언론 120개사 선정

세계에서 한국어로 발행되는 200여 개 동포 매체를 대표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올해 정부로부터 4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동포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지원과 소속 언론인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하던 동포언론 지원 사업을 대행해 국내외 언론인 연수를 비롯해 콘퍼런스, 고국 기획취재 지원, 콘텐츠 제작 지원, 공익광고 게재 등의 사업을 펼친다. 최근 지원 대상으로 120개 언론사를 선정했다.

동북아평화연대, 야쿠티아공화국 고려인에게 마스크 전달

북방동포 지원단체 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 임채완)는 러시아 북동부 시베리아에 있는 야쿠티아공화국 고려인과 현지 의료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4천 개를 전달했다. 인구 100만 명의 야쿠티아공화국에는 고려인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농사법을 보급해 야쿠티아 시민들이 기근에서 벗어나는 데 힘썼고, 현재 공화국 장관·의회 부의장·차관·헌법 소장 등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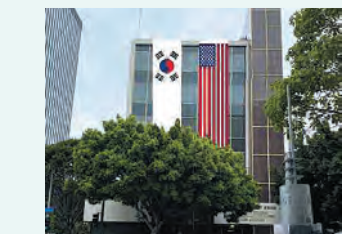


외교부, 중남미 7개국 공관에 재외국민 코로나 보호대책 당부

외교부는 6월 17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중남미 지역 공관과 화상회의를 열어 현지 재외국민 보호·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이태호 2차관 주재로 열린 화상회의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며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과테말라·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에콰도르·칠레·페루 등 7개국 공관장들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공관들이 재외국민 귀국 지원, 동포사회 감염 예방과 치료 지원, 기업인 활동 지원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 묶였던 극동 러시아 교민 58명 6월 20일 특별기로 귀국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러시아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 탓에 극동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교민 58명이 6월 20일 오후 대한항공 특별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러시아 정부가 모든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자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연해주 한인회는 3차례에 걸쳐 특별항공편 편성을 주선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5차례에 걸쳐 특별항공편이 운항했다.



미국 LA 총영사관에 대형 태극기·성조기 내걸렸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미국 LA 총영사관 건물 외벽에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길이 15m, 폭 3m 크기의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내걸렸다. LA 총영사관은 6월 25일 재향군인회, 6·25 참전자회 등과 함께 총영사 관저에서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한국전 당시 최전방에서 활약한 미국 육군 40사단을 대표해 로라 이거 사단장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지를 전달했고, 유엔 참전국인 필리핀과 태국 총영사도 참석했다.

“대한민국 독립 위해 헌신한 쑤징허 지사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최영삼 상하이총영사, 코로나 제한 풀리자 봉안당 찾아 조문

6월 5일 오후 중국 상하이(上海) 썬린(三林)능원의 봉안당 앞들. 청년 시절 대한민국 광복군의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중국인 독립운동 유공자고 쑤징허(蘇景和) 선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최영삼 주상하이 총영사가 추모사를 읽어내려 갔다.

“지사님께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광복군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 의지와 용기를 심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지사님께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지사님의 소원처럼 한·중 우정이 변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쑤징허 지사는 지난 2월 9일 10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약 탓에 우리 정부 관계자가 쑤 지사의 유해가 안치된 봉안당을 찾기까지는 넉 달이 걸렸다. 썬린능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직계 가족 2명만 입장을 허용하다가 최근에는 가족을 포함한 5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했다.

상하이 총영사관 관계자는 “쑤 지사님이 계신 봉안당을 직접 찾아가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고대해왔다”면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독립에 이바지한 쑤 지사님을 계속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중국 상하이총영사(오른쪽)가 중국인 독립운동 유공자 쑤징허(蘇景和) 선생 위패 앞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광복군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쑤징허 선생. 왼쪽 사진은 젊은 시절 모습.

쑤 지사의 장례식이 치러진 지난 2월은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하던 때여서 직계 유족조차도 몇 명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관계자를 보내 직접 조문은 하지 못하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쑤 선생 빈소에 조화를 보내 최대한 예우를 갖췄다.

쑤 선생은 1930년대 중국 최고 명문대로 손꼽히던 난징(南京) 중앙대학에 입학

해 조일문(2016년 작고) 지사 등 한인 청년들을 만났다. “항일로 나라를 되찾자”며 의기투합한 뒤 광복군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비밀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일제가 난징을 점령하자 1944년을 전후해 세 차례에 걸쳐 한인 청년들을 탈출시켜 시안(西安)의 광복군 부대까지 호송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쑤 선생은 신중국 건국 후에 공직자로 일했지만 적대 관계이던 한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문화대혁명 때 정치적 박해를 받는 등 순탄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추천으로 199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아 그나마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여서 관련 법령상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유공자 연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다.

최 총영사는 “쑤 지사처럼 외국인이라도 서도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의 후손들이 이제라도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변경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족을 대표해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쑤 지사의 아들 쑤시링(蘇希齡) 씨는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일본에 맞서, 당시 한국 임시정부를 돕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며 “한국 정부가 아버지를 잊지 않고 존중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창**

차대운 연합뉴스 상하이 특파원

인종차별에 맞선 베를린 유학생 부부로부터의 나비효과

지하철서 언어폭력 당하자 적극 맞서... 언론 · 학계 · 시민 · 정부도 나서

독일의 동포 유학생 이모(남편) 씨와 김모 씨 부부는 4월 27일 베를린의 지하철에서 5명의 무리에게 '코로나' 등의 인종차별적인 언어폭력과 함께 성희롱까지 당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가해 무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용감하게 막아섰다가 물리적 폭력도 당했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 접수에 미온적이었으나 주독 한국대사관이 개입하자 태도를 바꿔 조사에 들어갔다. 김 씨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 시민사회 의식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꼽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속죄의식과 더불어 타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민감하다. 이는 2017년 중동 등지에서 유럽으로 몰려온 난민 100만여 명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원동력이 됐다.

그런데도 인종차별의 그림자는 여전히 있다. 유대인 차별과 달리 아시아인 인종차별 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극심해지고, 이를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사회적 주목도는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부부는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모국에서 기사화된 후 독일 언론에도 보도됐다. 이진 독일 정치·문화연구소장이 인터넷매체 크라우트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개요를 알린 것을 시작으로 일간 베를리너모



독일의 동포 유학생 이모(남편) 씨와 김모 씨 부부.

르겐포스트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상세히 소개했다. 유력 주간지 차이트는 '차별을 촉진하는 코비드19'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정범구 한국대사도 쥐트도이체차이퉁,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의 인터뷰에 응해 아시아계 인종차별 관행을 지적했다. 일부 교민과 현지인들은 '인종차별은 바이러스다'(Rassismus ist ein Virus)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다. 유럽한국학회와 유럽일본학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세계시민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독일 정부도 움직였다. 인종차별 및 반(反)유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합특임관실은 아시아계 인종차별 현상에 대해 경고했다. 독일 내무부는 오는 10월 인종차별과 극우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부인 엘케 뷔텐벤테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통화하면서 인종차별 배격과 재독 한인 지원을 약속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지도자들은 유대인, 난민 등을 상대로 한 차별과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혐오와 증오, 인종차별에 맞서 싸워줄 것을 시민사회에 주문해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민자가 코로나19를 전파한다고 선동을 했던 극우정당은 시민의 지지를 점점 잃고 있다. 혐오 세력과 연대 운동 간의 치열한 전투에서 현재 연대가 우세한 형국이다.

그러나 아직 아시아계 인종차별 문제를 놓고 독일 시민사회에 경각심을 불러넣기 위한 독일 지도자들의 단호한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독일 사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다시 시험대에 놓여 있다. **[창]**

이광빈 연합뉴스 베를린 특파원

안중근·독도 연구의 권위자 최서면 선생 영면

31년간 일본 머물며 희귀 사료의 발굴·반환에 힘써

안중근 의사와 독도 문제 등 근현대 한국사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최서면 선생이 5월 26일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28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 달 만에 부친을 여의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사촌형인 고 최규하 대통령 집에서 함께 살며 원주보통학교를 졸업했다.

연희전문학교(연세대 전신) 재학 중 광복을 맞은 뒤 김구 선생이 이끄는 한독당 산하 대한학생연맹 위원장을 맡아 신탁동치 반대운동 등에 참여했다. 1947년 12월 2일 한민당 창당 주역인 장덕수가 암살되자 주모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년 반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

려났다. 감옥에서 가톨릭에 귀의해 아우구스티나란 세례명을 받고 노기남 서울대교구장과의 인연으로 장면 박사(1960년 총리로 취임)의 비서로 일했다.

고인은 장면 박사를 경쟁자로 여기던 이승만 정권 아래 신변의 위협을 느껴 1957년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후 31년간 재일동포 학자로 제2의 인생을 살았다. 국제한국연구원을 설립하고 일본 의회 도서관과 외무성 외교 사료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근현대사 연구에 매달렸다.

대표적인 업적이 1969년 안중근 의사 옥중 자서전인 '안응칠역사'를 발굴한 것이다. 이봉창 의사 재판기록을 공개하고 안중근 의사와 추사 김정희의 유묵도 찾아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장성이 무단으로 가져간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가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고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반환되도록 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도와 역사 자료 등을 발굴해 일본의 고유 영토설과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을 반박했다. 재일 시절 아시아(亞細亞)대 교



고인이 2017년 3월 24일 서울 연세대 학술정보관 안중근 사료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좌). 안중근 의사가 중국 뤼순(旅順)감옥에서 사형 직전에 쓴 유묵 '국가안위 노심조사'를 1976년 2월 10일 고인이 공개하고 있다.

수와 국제관계공동연구소장 등도 지냈다.

1988년에는 모국으로 귀환했다. 국제한국연구원 원장, 국가보훈처 안중근의사유해발굴추진단 자료위원장, 외교부 독도 자문위원장, 한국·몽골친선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새로 쓴 안중근 의사' 등이 있다. 부인 김혜정 씨도 고지도 수집과 연구에 천착해 평생 수집한 유물을 경희대에 기증한 뒤 혜정박물관장을 지내기도 했다.

5월 28일 장례는 김황식·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가족사회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제2대 주한 일본대사 가나야마 마사히데(金山政英)의 유해 일부를 받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천주교 하늘묘원에 안장했는데, 고인의 생전 희망대로 가나야마 대사 바로 옆에 묻혔다.

이낙연 위원장은 추모식 조사에서 "최서면 원장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있던 북관대첩비, 안중근 의사의 옥중 자서전, 독도가 우리 영토로 그려진 옛 지도도 선생의 노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

바른 말 고운 말

귀감이 된다

본보기가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귀감이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보기가 된다면 좋은 뜻일테니까 혹시 '귀감'의 첫 글자가 한자의 '귀할 귀(貴) 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거북 귀(龜)' 자를 씁니다.

예로부터 거북은 십장생의 하나로 신령한 동물로 여겨서, 그 등 껍데기를 가지고 거북점을 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감'의 두 번째 글자는 '거울 감(鑑)' 자를 씁니다. 이 글자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보기 위해서 세숫대야에 물을 떠 놓고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행위를 판단한다는 뜻으로 이 '감(鑑)' 자를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감(龜鑑)'은 본보기가 될 만한 언행이나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매무시와 매무새

같은 옷을 입어도 더 맵시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옷 매무시가 참 곱네요'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옷 매무새가 참 곱네요'라고 합니다. 우선 '매무새'라는 말은 '옷을 입은 맵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맵시가 좋다'고 할 때는 '옷 매무새가 곱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옷이 잘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매무시'라는 말은 '옷을 입고 나서 매만지는 뒷단속'을 뜻하는 말로, '한복을 입은 뒤에는 치마가 잘 여며졌는지 등의 매무시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나서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매무시를 다시 해야 옷 매무새도 더 고와질 수 있습니다. '매무시'와 '매무새'의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가로 방향 열쇠

1.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 '남북○○회담'
5. 철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 물체
6. 조선 세조 때 단종의 복귀를 꾀하다가 실패하여 잡혀 죽은 여섯 명의 충신
8. 남미 안데스산맥의 저지대나 멕시코가 원산지인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에는 중국으로부터 전래하였다. 지방에 따라 옥시기, 강냉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10. 사물의 정면을 그린 그림
11. 연지, 분 등을 바르고 얼굴을 곱게 꾸미는 것
13. 음력 5월 5일의 우리 민족명절
14. '충성과 효도'를 줄인 말
15. 털이 달린 동물 가족. 뛰어난 보온성을 갖고, 주로 방한용 의류 원료로 사용된다
17. 금으로 만든 반지
19.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뜻의 한자성어. '공수래 ○○○'
21. 웃어른 앞에서 자기 아내를 낮추어 이르는 말. '○어미'
23. 유교와 불교와 선(仙)교를 줄인 말
25. 태어난 날
26. 얼굴의 눈썹 위로부터 머리털이 난 아래까지의 부분

▶ 세로 방향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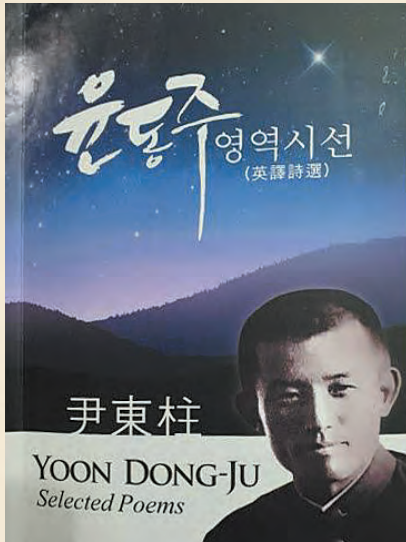
2. 사철 푸른 나무
3. 곡류, 과채류 따위의 씨나 모종을 심어 기르고 거두는 일
4. 자기 몸을 보호함
5. 고기와 채소를 넣어 볶은 중국 된장에 국수를 비벼 먹는 음식
7. 나와 사촌의 아들, 딸들과의 촌수
9. 언어 장애인들이 구화(口話)를 대신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의사 전달 방법
10. 낮 12시
12. 학문 연구의 조성을 위한 장려금, 또는 가난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위한 학자 보조금
13. 무로 담근 일본식 짬지. '단○지'
14. 이순신 장군의 시호
16. 잉어과의 민물고기. 하얗은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사용된다
18. 여름밤 꿈무늬에서 불빛을 내며 날아다니는 벌레
20. 일주일 중 중앙에 있는 요일
22.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
23.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무술. 한국은 태권도, 중국은 쿵푸, 일본은 '○○'
24. 하늘에서 사는 여자. '○○와 나무꾼'이라는 동화도 있죠

▶ 2020년 4월호 정답

임	시	정	부	지	지	배	배
사		화	생	방		수	
사	회	성	강	급	진	전	
일	름	명	암	행	성	년	
구						수	도
혁	삼	강		미	인		대
명	왕	성	격	사	이	비	
	대	유	년	기	순		
구	비	문	학	독	립	신	문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한 마음 알리고파”

‘운동주 영역시선’ 펴낸 재미동포 변만식 씨



윤동주(1917~1945)는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민족시인으로 꼽히고 그가 남긴 ‘서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더불어 한국인 애송시 1, 2위 자리를 다룬다. 맑은 영혼과 간절한 소망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그려낸 시구와, 광복을 몇 달 앞두고 젊은 나이로 옥중에서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큰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용 도덕 교과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운동주’란 제목 아래 “독립을 향한 열망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많은 작품에 남기고 떠난 재외동포 시인”이라고 설명해놓았다.

미국 버지니아주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변만식(90) 씨는 운동주의 대표시를 영어로 번역한 ‘운동주 영역시선’ (英譯詩選 · Selected Poems)을 5월 미국에서 펴냈다. ‘서시’ (Sky, Wind, Star and Poem), ‘자화상’ (The Self Portrait), ‘또 다른 고향’ (Another Homeland), ‘참회록’ (The Confession) 등 13편을 한글과 영어로 싣고 해설도 덧붙였다.

변 씨는 “운동주는 고고한 자세로 순수문학만을 추구한 박애주의 시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 동양 3국에 걸쳐 문학의 향기로움을 전해 주고 의로운 죽음을 당한 시성(詩聖)이라 부를 만하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영역 시선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문학을 전공한 민병희 인하대 명예교수는 추천의 글에서 “작가의 번역은 탁월하고 흠이 없어 완벽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운동주 영역시선’에는 지린(吉林)성 룡징(龍井)시 명동촌의 운동주 생가, 생가 입구에 ‘서시’를 새긴 비석, 1943년 일본에서 친구들과 소풍갔을 때 모습 등을 담은 사진과 삽화도 실려 있다. 운동주를 기리고자 릿교(立敎)대 동창들이 만든 ‘릿교의 모임’ 대표 야나기하라 야스코(楊原泰子) 씨의 헌시 ‘기적의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함께 ‘거리에서’, ‘별 헤는 밤’, ‘창공’, ‘무서운 시간’ 등 운동주의 시 33편 목록과 시인 연보도 곁들였다.

2부에서는 구상 ‘초토의 시’ (Poem of the Wrecked), 김광섭 ‘마음’ (Mind), 김소월 ‘초혼’ (Le Invocation)과 ‘진달래꽃’ (The Azalea), 노천명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Being An Incognito), 박목월 ‘하관’ (The Burial), 박두진 ‘꽃’ (Flower) 등 근현대 한국 시인의 시 26편을 번역해 소개했다.

개성 출신인 변 씨는 서울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재학 중 미국 육군 기관지 ‘The Star & Stripes’에서 통번역 기자로 근무했고, 졸업 후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근무하다 1967년 미국 워싱턴에 이민했다. 운동주문학회 회원인 그는 자서전 ‘The Path I Walked’ (내가 걸어온 길)를 한국어·영어·일어로 펴내기도 했다. **창**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19개국 120명 선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제23기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스페인 등 19개국 120명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석·박사 과정은 85명이고 학사 과정은 35명이다.

초청 장학생에게는 매달 생활비 90만 원을 비롯해 왕복 항공료 1회, 보험료 등을 포함한 장학금을 2~4년간 지원한다. 한국어 실력이 미흡한 장학생에게는 한국어 연수 기회도 제공하며 모국 문화 체험과 장학생 간 네트워크 구축 기회도 부여한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한우성 이사장은 “장학생들이 21세기 격동의 시대에서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으로 각자의 꿈을 이루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부터 해마다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시행해왔으며, 누적 초청 장학생은 약 1천400명에 이른다.



2019년 2월 28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제23기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및 졸업식 환송회가 열리고 있다.

초청 장학생 신청은 매년 2~3월 경에 접수한다. 희망자는 재단 홈페이지(www.korean.net)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증빙서류를 거주국 우리 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넷과 관할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유럽 한인 100년의 발자취 유럽한인총연합회
1919년 11월 19일 35명의 한인이 프랑스에 첫발을 내딛으며 시작된 유럽 한인의 역사가 어느덧 100년이 됐다. 역경 속에서도 떠나온 나라를 기억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후손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청취해 책으로 엮어냈다. 이 책을 통해 지나온 100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이라는 지리적·문화적 공간에서 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왔던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인 정체성을 안고 권리의 주체로 일어서려는 노력을 담았다. 이 책은 제7회 ‘말과 젠더상’ 특별상, 여성운동가상인 제32회 아마가와 기쿠에상 수상작으로 뽑혔다. 시대적 담론 속에서 정체성을 갖고자 노력했던 재일 조선인 여성의 삶과 투쟁을 만나 보자.



할머니들의 야간중학교 서아귀(오월의 봄)
일본 오사카에서 1990년대부터 펼쳐진 재일 조선인 할머니들의 교육 투쟁이 있었다. 차별과 억압 속에서 재일동포 여성이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한 싸움이었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뒤 과거 식민지의 국민이자 여성으로 이질적

떠도는 땅 김숨(은행나무)
1937년 조선인(고려인) 강제이주 역사를 장편소설로 꾸민 작품이다. 일제의 탄압을 벗어나고자 떠났던 땅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돼버렸다. 돌아갈 수 없는 땅에 대한 그리움은 인물들 간의 대화로 채워지고 있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진행된 인물들의 대화는 삶의 역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일련의 전작에서 역사적 아픔을 짊어냈던 작가의 특유의 시선을 따라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죽음의 유배 길을 온몸으로 느껴보자.



재한 87만 중국동포사회는 어디로



김용선 문화콘텐츠학 박사 / 한중무역협회 회장

전체 187만 조선족 중 근 절반인 약 87만 명이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1980년대 KBS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고국으로의 역이주는 어느덧 30년을 훌쩍 넘어섰다. 친척 방문,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의 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 비로소 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면서 중국동포들은 합법적으로 고국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적 지위의 안정화는 가정의 안정화로, 경제적 안정화로 이어졌고 차츰 문화생활, 취미생활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각종 단체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하지만 국내 체류 동포들에 대한 법적 근거도 약하고 전담 부서나 기관, 예산도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단체 대부분 역량이나 전문성이 결여되고 전문 시민활동가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아직 전반적으로 재한동포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나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동포들은 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후부터, 특히 한중 인적·경제·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서비스업종, 제조업, 농어촌, 건설업 등 3D 업종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수출업, 물류, 유통, 투자 유치, M&A(인수합병), 콘텐츠, IT(정보기술) 등 많은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법적 근거 문제로 이들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도 전무하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등 복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심지어 국적 취득, 영주권 취득 등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의료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부분도 훨씬 불리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 지원금에서도 이들 대부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KC동반성장기획단 등 재한 중국동포들과 단체들은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하고, 포항 지진 시 모금운동을 해 헌금하고, 강원 산불 피해 시 봉사활동을 하고, 코로나19 창궐 시 대구에 라면 2천 박스와 방호복과 지원금을 보내기도 했다.

한민족으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가족 단위로 생활하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봉사활동을 하고 한중 경제·문화 교류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밀집 지역 동포 체류지원센터 설립 등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창**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넛으로



통합 [통]

함니다

75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넛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소통과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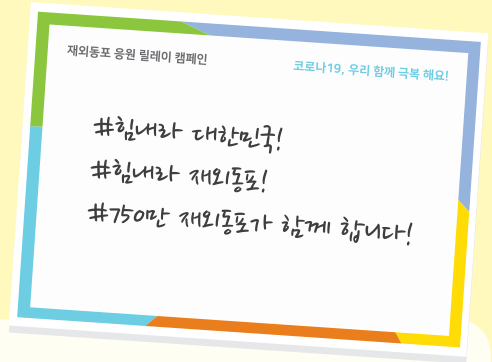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코로나19, 우리 함께 극복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외동포 희망 릴레이 캠페인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염원을 담아 **재외동포 희망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희망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이어가 주세요.

참여방법



* 자세한 참여방법은 **코리안넷(www.korean.net)** 희망릴레이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 ▶ Tip 1 지목 받지 않아도 내가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 ▶ Tip 2 피켓 출력이 어려운 경우, 도화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힘내라대한민국! #힘내라재외동포! (또는 거주국이나 단체명) #750만재외동포가함께합니다! #코리안넷 #재외동포재단

캠페인 관련 문의 pms01@okf.or.kr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